

2050 탄소중립 실현 농식품 기술혁신 논하다

P4G 서울정상회의 '식량·농업 세션' 연계 국제 심포지엄 농진청 국내 농업부문 온실가스 저감 실용사례 '관심 집중'

농촌진흥청(허태웅 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한국협력연락사무소와 공동으로 25일 서울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국제 심포지엄(학술토론회)을 개최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식품 기술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P4G 서울정상회의(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앞두고 마련된 식량·농업 세션(분과) 부대행사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및 현장 참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 세계 청중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어와 한국어로 실시간 송출했다.

먼저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의 환영사에 이어 필리핀 농업부 윌리엄 달(William D. Dar) 장관과 FAO 토마스 랑(Thomas Laurent) 부사무총장이 축하 메시지(알림발)를 영상으로 전달했다.

이어 FAO 한국협력연락사무소 탕성야오(Tang Shengyao) 소장의 혁신 기술 및 연구를 통한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기조연설을 비롯해 네덜란드, 뉴질랜드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전문가들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

한 기술 개발 및 사례에 관한 주제발표를 했다.

네덜란드 바헨닝언 대학연구센터(WUR)의 토니 티머만(Toine Timmermans) 연구원은 농식품 밸류체인별 식품손실 저감을 위한 R&D 혁신에 대해 소개했다. 뉴질랜드 1차 산업부 윌리엄 에이켄헤드(William Aitkenhead) 수석 분석가는 '뉴질랜드 축산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R&D 혁신기술'을 발표했다.

특히 농촌진흥청 신중두 박사는 국내 농업부문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저감 기술에 대한 실용적인 사례를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주제발표 뒤 열린 패널(토론자) 토의에서는 농식품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더불어 국제사회가 현재 상황을 함께 인식·공유·연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과 동시에 민관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농축산업은 식량안보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분야인 만큼 식량 생산성은 높이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혁신기술 개발과 공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25일 서울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식품 기술혁신을 주제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전북농협과 옥구농협은 심리향미 재배농가와 함께 25일 군산시 옥구읍에서 전북 광역브랜드 쌀 '예담채 심리향미' 풍년기원 모내기 행사를 개최했다.

심리향미의 풍년 기원

전북 광역브랜드 쌀 모내기 행사 열려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옥구농협(조합장 정봉규)은 심리향미 재배농가와 함께 25일 군산시 옥구읍에서 전북도청, 전북농업기술원, 군산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광역브랜드 쌀 '예담채 심리향미' 풍년기원 모내기 행사를 개최했다.

심리향미는 전북농업기술원이 10년의 연구 끝에 개발에 성공한 향기 나는 쌀로, 밥을 지을 때 구수한 향이 심리까지 퍼질 정도로 초맛을 기본 좋게 자극하는 점이 착안해 품종명 공모를 거쳐 선정됐다.

지난해 첫 상업재배를 거쳐 올해에는 옥구농협, 대야농협, 여산농협 관내 농가 200여ha의 농지에 본격적으로 재배하게 된다. 기존 신 품종과 함께 심리향미는 프리미엄 시장에서 전북을 대표할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프리미엄

시장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예담채 심리향미'를 전라북도 광역브랜드로 지정하고 전북의 비옥한 토양에 생산단지를 조성했으며,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차별화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올해 심리향미의 풍년농사를 기원하고 프리미엄 쌀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진출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확대에 대응해 다양한 채널의 온라인 마케팅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지난 1월 대형 유통업체인 롯데상사와 '예담채 심리향미'의 성공적인 시장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400여개 롯데마트와 롯데슈퍼에서 생필품 판매되고 있으며, 프리미엄 시장에서 인정받는 온라인 채널 마케팅에 입점해 판매중이다. /김윤상 기자

4월 전북 수출, 전년동월대비 41.2% ↑

2011년 8월 이후 10여년 만에 최고 증가율

주력 수출품목 대부분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

4월 전라북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1.2%가 증가한 6억7,673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번 증가율은 2011년 8월 이후 약 10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향후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하게 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일)가 발표한 2021년 4월 전라북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1.2% 증가한 6억7,673만 달러, 수입은 16.4% 증가한 5억2,067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무역수지는 1억5,605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주력 수출품목 대부분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수출 실적을 보였다.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한 품목은 전년 동월 대비 81.1% 증가한 농약 및 약품(\$ 7,470만, 81.1%)이었으며, 합성수지(\$ 5,912만, 88.8%), 정밀화학원료(\$ 5,444만, 41.3%), 건설광산기계(\$ 5,417만, 31.9%), 동제품(\$ 5,125만, 57.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력 5대 제품의 평균 수출 증가율이 60%를 상회할 정도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특히 농약 제품은 전년 대비 수출이 80%이상 증가하며 전북의 최대 수출품목으로 올라섰다. 국가별로는 중국(\$ 1억3,690만,

23.5%), 미국(\$ 1억630만, 36.3%), 베트남(\$ 4,017만, 36.8%), 일본(\$ 3,566만, 11.5%), 브라질(\$ 3,190만, 275.9%) 등 5대 수출대상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브라질의 경우 월별 수출이 10위권에 머물렀으나 4월에는 농약 품목 수출이 크게 증가(639.8%)하며 5위 수출국가로 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전년도 하락분에 대한 기저효과와 그간 코로나19로 지연된 신제품 출하, 글로벌 경기회복 등이 높은 증가율을 가져왔다"며 "2차전지, 전기차 등의 소재·부품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라북도의 수출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김윤상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먼 나라와 이웃하기'

전북은행 JB문화공간 이원복 교수 강연 성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후원하는 JB문화공간은 지난 22일 이원복 덕성여자대학교 석좌교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먼 나라와 이웃하기'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에서는 작가이자 덕성여대 시각디자인학과 교수인 이원복 교수가 그의 베스트셀러 '먼 나라 이웃나라' 집필 비하인드 스토리와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 배경들을 소개해 청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오는 28일에는 이주현 미술평론가의 '세계 미술관 기행' 강연이, 29일에는 매력적인 레게음악으로 유명한 흥대인디밴드 '피아젠즈'의 루프탑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JB문화공간의 회원 가입 및 프로그램과 대관 신청은 홈페이지(www.jbcenter.or.kr)와 JB문화공간 담당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 시 동호회 대관 우대 혜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에 무료 혹은 우선 참여, JB카드 50%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288-7797)로 하면 된다. /양은경 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ESG경영기조 확대... 전은, '카카오페이 전자문서 서비스' 시행

'종이 없는 사회' 정책에 맞춰

우편발송 비용 절감 효과

향후 적용 업무 확대기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지난 21일부터 ESG경영기조 확대와 정부의 '종이 없는 사회' 정책에 발맞춰 고객 안내 DM(우편통지) 발송 업무를 카카오페이 전자문서 서비스로 전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카카오페이 전자문서 서비스

로 전환되는 업무는 대출금 분할상환 기일안내 안내 및 휴면예금거래 안내 업무로, 우편발송 비용 절감 효과와 종이우편의 높은 분실률 및 배송률, 오배송, 수신 및 열람 여부 확인의 어려움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은행은 향후 전자문서 서비스 적용 업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의 종이 명세서 보관의 불편을 해소하고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 예방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자문서 서비스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종이 사용 최소화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등으로 환경 보호와 ESG경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지난 2월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고, 3월에는 '상생 ESG펀드' 출시와 700억 규모의 ESG 채권 발행, 4월에는 전북도와 탈석탄 금융협약체결 등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ESG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도내 70개 실험 사회공헌재단에 1억50만원 기부

실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김윤식)이 지난 24일 전북 실험 사회공헌재단 기부금 전달식을 통해 전북 지역 70개 실험이 기부금으로 1억500만 원을 재단에 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윤식 실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과 전영태 실험중앙회 이사, 전북지역 권의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서 유원영 전북지역실험협의회장(삼례실험 이사장)은 전북 70개 실험을 대표해 1억500만 원을 재단에 기부했다.



실험사회공헌재단은 지난 24일 전북 실험 사회공헌재단 기부금 전달식을 통해 전북지역 70개 실험이 기부금으로 1억500만 원을 재단에 기부했다

이날 기부금은 실험중앙회 '조합원 사업'의 일환인 출자금 배당금으로 마련됐다. 2020년도 실험중앙회 성과관리 결과 최우수 지역본부로

선정된 전북지역 실험은 2017년부터 5년 연속 기부해 2억5,000여만 원(2억4,785만8,740원)의 누적 기부금을 조성했다. /김윤상 기자

농생명 교육 통한 미래인재 육성 '맞손'

전북농협-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지역사회공헌 협약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원장 정은식)는 25일 농협지역본부에서 영농철 농촌일손돕기 추진과 농촌지역 활성화, 농생명 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미래인재 육성 등 다양한 협력사업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영농철 농촌일손돕기 등 농촌지역 사회공헌활동 전개 ▲우리 농축산물 애용 및 농촌방문·체험을 통한 농촌활력화 ▲농생명 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 한 성장 도모 ▲다문화가정 자녀 등 사회 배려대상 청소년의 교육 복지 향상 등 사회적 책임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의 공동 추진을 다짐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이번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 배려대상 청소년의 교육 복지 강화 배려 대상자 자녀 등 청소년의 농생명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미래인재 육성 성과 영농철 농촌일손돕기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은식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영농철 농촌지역 일손돕기를 통한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실현 및 향상에 기여하며, 양 기관의 매칭펀드를 이용하여 전라북도 청소년들에게 진로·창업 등 주제로 한 농생명 특화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공 및 확산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협약식 이후 전북농협은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농생명 진로창업 캠프사업에 2,500만 원을 지원하며 전달식도 함께 가졌다. /김윤상 기자

전북중기청, '메이커스페이스' 주관기관 모집... 내달 14일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6월 14일까지 2021년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에 참여할 주관기관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메이커스페이스는 제조와 창작을 위한 장비와 시설이 구비된 열린 공간을 국민 누구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하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선정된 법인에는 시설 구축, 장비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신청 구분에 따라 전문팀은

최대 15억원, 일반팀은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현재 전북에는 한국전소산업진흥원, 한국전통문화전당, 기전대학교 등 10개의 메이커스페이스 운영기관이 있으며, 이들 운영기관은 각자 자체 특성에 맞는 운영 프로그램(교육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장비 시설 이용 등)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 창작 활동 수요에 부응하는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www.mss.go.kr)와 케이(K)-스타트업(www.k-startup.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